



김 영 선 (주)진우아이앤피 대표이사

1992년 진흥화학으로 시작한 (주)진우아이앤피는 2000년 지금의 자리인 경기도 광주에 동지를 틀면서 식품, 제약, 화장품 산업용 연포장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진우아이에스를 거쳐 지난해 진우아이앤피 음성공장을 준공하면서 기존 연포장 소재는 물론 가전강판용, 가구목재용, 기타 산업용에 사용되는 고기능 첨단소재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영선 진우아이앤피 대표이사를 만나 진우아이앤피의 현황과 함께 30여 년간 포장기업을 이끌어온 포장인으로서 국내 포장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견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과감한 시도

“주5일제 근무를 20년째 시행 중이다. 52시간 근무가 법제화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

김영선 (주)진우아이앤피 대표이사는 “모두 알다시피 그라비아인쇄 업종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이라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협력사와 함께 알코올잉크 개발에 몰두했다. 5년에 걸친 연구 끝에 경화제 없이 레토르트파우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반응이 매우 뜨겁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이사의 도전은 플렉소인쇄로도 이어졌다. 그가 플렉소인쇄의 매력에 빠진 것은 7~8년 전 독일 플렉소인쇄기 업체를 방문하면서다. 그는 “당시 플렉소인쇄의 장점, 특징을 접하고 이제 우리도 플렉소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라비아인쇄의 경우 잉크 회수에만도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해야만 한다. 반면 플렉소인쇄는 버튼 하나로 5분 만에 모든 잉크를 회수 및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유기용제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이 생각났다. ‘이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라고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플렉소인쇄에 대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객사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차례 플렉소인쇄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담당자는 결정권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친환경 기술 적용할 수 있는 기회 필요

김영선 대표이사는 최근 포장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환경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한다.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계가 친환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과정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단일소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PP나 PE 단일소재로 포

장을 해도 그것을 재료별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먼저 분리배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사용자, 즉 소비자가 소재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표시를 하고 소재 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제조사만 움직여서는 진정한 친환경에 도달할 수 없다. 친환경 방향으로 정부, 제조사, 소비자 모두 함께 움직여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한걸음 먼저 앞장서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진우아이앤피는 친환경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기업경영의 핵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R&D센터에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제품화하지 못한 기술이 많다. 1원이라도 비싸면 신기술 적용이 쉽지 않은 풍토 때문이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덕적 경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해야

“우리 업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기술 개발, 시설 투자 등을 추진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시장구조가 돼 안타깝다.”

김 대표이사는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도덕적 경영을 못한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정당하게 경쟁하고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구조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5일 근무제를 20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당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유럽이나 미주의 거래처들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쉬더라. 시간 조정만 제대로 하면 우리도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입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직원

인터뷰

들에게 그 정도 대접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주말도 없이 2교대, 3교대 근무를 시키니 생산량 차이가 점차 커졌다. 그래서 한동안 고전했는데 주5일 근무제를 끝까지 고수했다. 오늘날 주5일 근무가 당연한 일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앞서 나갔을 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투명경영·원칙경영·책임경영’을 진우아이엔피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동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품질로 고객사의 파트너가 되다

그는 “진우는 영업사원이 없다. 거래처 사람과 일 없이 술 먹고 밥 먹고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미국 기업 담당자에게는 용건 없이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 제품과 관련한 명확한 용건이 있어야만 연락이 가능하다.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고 전시회 등을 통해 세일즈를 하지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다. 우리 제품이 최고 기술로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사에 소개하면, 제품 자체로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래가 시작되면 정기적으로 제품 품질을 점검하기만 하면 된다. 핵심은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항상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원하는 것을 개발 및 생산한 이후에는 일정



▲ 김영선 (주)진우아이엔피 대표이사는 “그동안 우리 업계는 너무 가격경쟁에만 몰두해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제공하면 저절로 고객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주로 가는 기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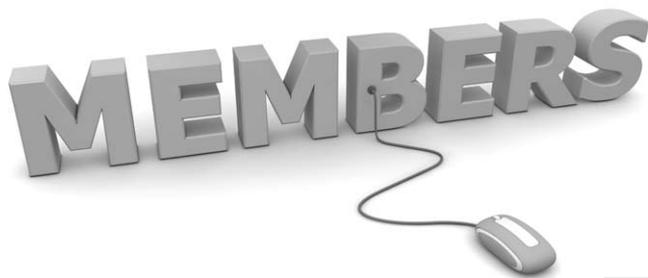
김영선 대표이사는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우려했다. 2차 전지 등 배터리 쪽에서 알루미늄을 쓸어가기 때문에 포장 쪽으로 가져올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이사는 “조만간 알루미늄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알루미늄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가 있는가? 일본은 투명PET 등 하이배리어성 포장재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한가? 그동안 너무 가격경쟁에만 몰두해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대표이사는 진우아이앤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식구,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꿈과 희망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주로 가는 진우의 기술은 그 일환이다. 과거 세계로 가는 기술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세계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한다. 요즘 돈만 있으면 세계일주여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만 우주여행을 갈 수 있다. 일론 머스크와 조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포장기술은 지금이라도 우주에 갈 수 있다. 우주식품포장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이다. 우주로 가는 기술을 목표로 희망 차게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에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